

Benzene, 미국 약세로 40달러 폭락!

FOB Korea 445-465달러 기록 ... 일본, 플랜트 보수 겹쳐 가격 하락

Benzene 가격은 8월22일 FOB Korea 톤당 445-465달러로 40달러 폭락했다.

아시아 벤젠 시장은 미국 Spot 가격 약세를 나타내고 참여기업들이 장기구매 전략을 내세움에 따라 벤젠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잇따른 플랜트 보수로 인해 많은 참여기업들이 장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히려 SM 수요가 증가해 Ethylene 공급부족 사태가 나타났다.

수요일에는 벤젠 공급기업들이 장기구매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시장에 대거 몰려들어 벤젠 가격이 톤당 47.5달러 폭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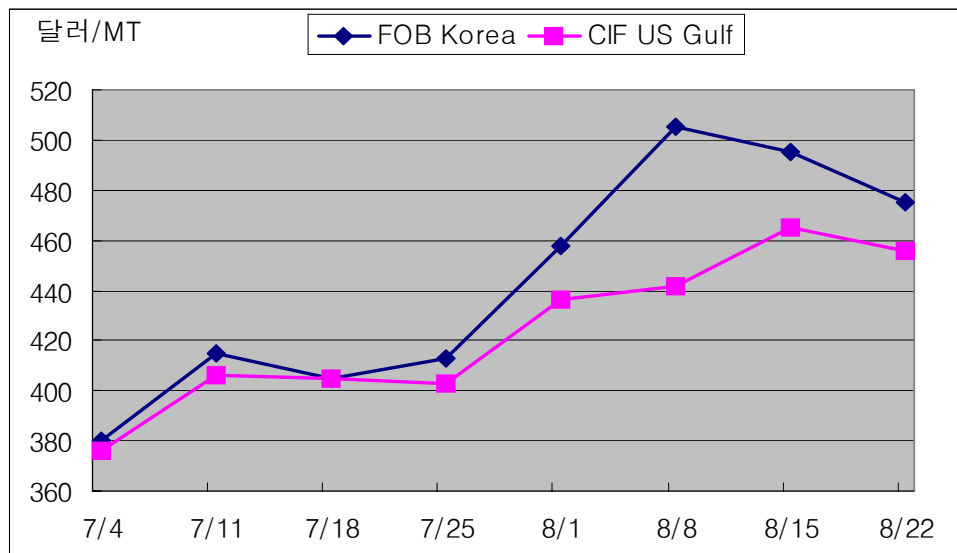
미국 Spot 가격은 지난 화요일 갤런당 155센트로 4센트 하락했다.

9월 하순 거래물량 3000톤이 CFR Taiwan 톤당 468달러로 FOB Korea 기준으로 톤당 약 453달러에 판매됐고 연이어 CFR Taiwan 톤당 465-468달러, FOB Korea 톤당 460달러, 455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이후 경매가가 FOB Korea 톤당 420-430달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무역상들은 운임료를 제외하고 미국의 9월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을 제시했다.

아시아 시장에는 수요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대부분의 물량이 미국에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Benzene 가격추이



한편, 미국의 벤젠 가격은 FOB US Gulf 파운드당 151.00-153.00센트로 톤당 평균 456달러를 기록해 9달러 하락했으며 8월 계약가격은 140.00센트를 나타냈다.

<Chemical Journal 2003/08/28>